韓國 兒童의 관계절 습득 연구*
—普遍文法 言語原理의 持續的 言語習得 理論을 중심으로—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
Continuity of the Principles of Universal Grammar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이 귀 옥**
Lee, Kwee 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development of embedding through relative clause formation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Korean. Results are reported from the study of the spantaneous natural speech of 36 young Korean children ranging from 16 months to 45 months in age acquiring Korean as their first language in Chinju, Korea.

The results revealed a developmental order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Korean relative clause structures. Namely, a free or headless relative clause appears to be acquired first, before lexically headed restrictive relative construction. This order is consistent with one evidenced in English (and also Chinese) first language acquisition, 'free' relatives appear to provide a developmentally early stage in the acquisition of restrictive relative clauses. The Korean data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for an intermediary stage with an overt complementizer as well as an overt lexical head.

Implications for the results are disscused with regard to a continuous theory of universal grammar i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Ⅰ. 序 論

"普遍文法(Universal Grammar=UG)"은 인간 언어의 '必須要素'인 동시에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能力의 必須要素'로서 기본적 언어원리(Principles)와 媒介變項(Parame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언어습득 능력의 필수요소로서의 보편문법은 아동언어 습득과정에서 언어원리는 '言語初期狀態(initial state)'를, 매개변항은 '學習理論(learning theory)'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Chomsky, 1975, 1980, 1986, 1987).

현재 아동 언어습득 분야에서는 보편문법의 최근이론에 관련된 특정한 언어 원리와 매개변항이 아동 언어습득에서의 역할을 밝히거나 검증하는

* 본 논문은 1991년 미국 코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경성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연구가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도 아동의 '言語初期狀態'에서 어떤 특정한 언어로의 최종 발달 기간중 언어발달에 대한 보편문법의 영향이 持續的(continuity)인가 혹은 非持續的(discontinuity)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Chomsky, 1987; Gleitman, 1990; Grimshaw & Rosen, 1990; Cohen Sherman & Lust, 1988). 즉, 언어 습득과정의 실제 여러 시점에서 보편문법의 언어원리로 시작된 아동문법이 (UG 가능성) '構造 再編 過程'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지발달 분야에서는 인간발달의 지속성과 비지속성의 문제로써 오랫동안 논쟁의 쟁점이 되어왔다. 예를 들면, 최근에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Piaget는 아동이 여러 발달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달한다고 하였다(Piaget, 1970; Gelman & Baillargeon, 1983). 언어는 高度의 複合性과 規則性을 바탕으로한 認知體系중 하나이므로 어떻게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인지발달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반적인 인지체계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발달심리 언어분야에서는 內包文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관계절에 대한 아동의 언어 습득과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이 관계절 습득과정에서 어떤 발달단계를 거치는가? 혹은 관계절 획득에 선행된 발달이 있는가?를 통하여 언어 혹은 언어구조에 적용되는 원리와 규칙에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계절 습득에 관한 言語間 交叉硏究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므로(Kim, 1987; Limber, 1973; Hamburger, 1980; Hamburger & Crain, 1982; Demuth, 1990; Lebeaux, 1988; Tavakolian, 1981; Goodluck & Tavakolian, 1981, 1982). 언어발달의 보편적 요소를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간 교차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韓國兒童의 관계절 습득과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英語, 中國語 관계절 습득과정과 비교해봄으로써 언어 발달 본성에 보편성과 발달의 순서를 밝히고자 한다.

Ⅱ. 理論的 背景

1. 關係節(Relative Clauses)

관계절은 모든 자연언어의 필수요소의 하나인 複合文에 속한 內包文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Comrie, 1981; Andrews, 1975). 한국어와 영어의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의 보기가 (1)과 (2)에 제시되어 있다.

(1)「순희가 어제 산」 책
(2) a book 「which (that) Swunhi bought yesterday」

관계절은 '名詞節'속에 문장을 내포함으로써 複合 名詞節을 형성한다. 명사절은 '머리'명사(위 문장 (1), (2)의 밑줄 친 부분)와 그 머리명사를 수식하는 '補文'節(「 」로 나타낸 부분)로 전통적으로 분석한다. 보편문법의 최근 이론에서는 언어를 어휘적 범주와 기능적 범주로 나누어 보문절을 이끄는 보문자는 어형변형사나 한정사 등과 함께 기능적 범주로 분류한다. 관계절은 머리명사의 有無에 따라 (3)과 (4)에 제시된 것과 같은 자유관계절(Free Relative)과 (5)와 (6)의 어휘머리 명사관계절(Lexically headed Relative, 이 논문에서는 이후로 어휘관계절로 지칭함)로 되어있다.

(3) Mary wants what you have.
(4) 메리는 네가 가진 것을 갖고 싶어한다.
(5) Mary wants the candy you have.
(6) 메리는 네가 가진 사탕을 갖고 싶어한다.

자유관계절의 內部 統辭 構造(internal syntactic structure)에 대한 해석은 여러 이론이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영어 자유관계절은 '補文字 解析'(a Comp-analysis; Groos & Van Riemsdijk, 1979; Jacobson, 1985)을, 한국어 자유관계절은 '것'을 보문자로서 해석하여 '것'이 포함된 관계절을 자유관계절로 보는 해석(Lee, Lust, & Whitman, 1990; 이귀옥, 1991)을 따른다.

현재, 발달심리 언어분야에서 이러한 관계절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나 영어습득 연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 영어 자체의 특정적 요소로 인해 언어발달의 보편적 요소와는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어와 영어는 여러 면에서 체계적으로 相異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첫째, 한국어는 SOV(subject, object, verb) 언어로 관계절이 名詞 前에 내포되는 左向言語이고 영어는 SVO(subject, verb, object) 언어로 관계절이 名詞 後에 내포되는 右向 言語이다. 둘째, 한국어는 은, 는, 을과 같은 冠形語尾로, 영어는 that, who, which, where 등으로 관계절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한국아동들이 관계절 습득과정에서 영어 관계절 습득과정과 같은 발달단계를 거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영어 관계절 습득에 관한 연구

Hamburger(1980)는 2살난 아동의 自發言語를 연구하였다. 24개월부터 28개월까지의 아동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난 관계절 형태는 (7)과 같은 '原始-關係節(proto-relative)'이며 4개월 후에 (8)과 같은 자유관계절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Hamburger는 연구기간 동안 어떤 형태의 어휘관계절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7)과 (8)는 아동이 벽에 걸려있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지칭한 것이다.

(7) My did it.(24개월)

(8) a. Look-a wy made.(26개월)

b. Look-a wha-I made.(28개월)

Limber(1973)는 세 어린이의 自發言語를 이용한 종단연구에서 (9)와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자유관계절, 어휘관계절 順으로 아동의 관계절 습득과정을 관찰하였다.

(9) I show you what I got (2년 : 04개월)

(10) I show you the place we went (2 : 04)

…thing I got (2 : 09)

…ball that I got (2 : 11)

Limber의 연구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한 관계절 구조는 Hamburger의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절 구조와 일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두 자발언어를 사용한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Flynn & Lust (1980)의 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구조의 관계절이 포함된 문장의 誘導模倣을 이용한 언어산출과 이해의 실험연구에서도 자유관계절이 제일 먼저 사용되었고 어휘관계절은 나중에 나타났다. 이 실험연구에서 실험자가 (11)의 (A)와 (C) 같은 문장을 들려 주었을 때 아동의 반응은 (B)와 (D)이었다.

(11) (A) 실험자 : Ernie touches the ballon which Big bird throws.

(B) 아동 : Ernie kissed it what Big Bird throw. (4 : 01)

(C) 실험자 : Cookie Monster eats the thing which Ernie kicks.

(D) 아동 : Cookie Monster touches the thing that which Ernie kicks (3 : 09)

3. 중국어 관계절 습득에 관한 연구

Packar(1982, 1986)는 臺灣에서 중국어를 습득

하는 27명의 2살된 아동들의 자발언어를 이용하여 중국아동의 관계절 습득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들이 언어습득 초기에 (12)에 제시된 것과 같은 '的(더)' 자유관계절 구조를 먼저 사용하고 이어서 어휘관계절이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 "會 的, 這 邊, 來, 啊!"
(할 수 있는거, 이리 와!) (2:10)

Packard의 연구결과 또한 중국어 관계절 습득은 일정한 단계를 통하여 발달하며 자유관계절을 어휘관계절 보다 아동이 선호한다는 영어 관계절 습득에 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4. 한국어 관계절 습득에 관한 연구

조명한(1984)은 1살에서 3살 사이의 세 어린이를 자발언어를 사용하여 한국아동의 언어 습득과정을 연구하였다. 최초로 사용된 관계절은 아래의 (13)의 문장과 같은 '것'과 主節動詞 '이다'로 결합된 형태였다.

(13) a. 돌 밟고 가는 거지? (석, 3년:1개월:7일)
b. 물 뿌리는 거야! (미, 1:11:17)
c. 아빠 학교 가서 사온 거야? (경, 2:5:21)

또한 김영주(1987)는 1년 6개월-3년 5개월 사이의 세 어린이의 자발언어를 이용한 한국 아동의 관계절 습득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 김영주는 한국아동은 관계절 습득과정에서 아래의 (14)와 같은 관계절이 사용된 것을 관찰하였다. 김영주는 특히 (14) a와 같은 형태의 관계절이 많이 나타난 것을 실용적 관점으로 해석하여 아동이 주위에서 그러한 형태의 관계절을 많이 접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하였다.

(14) a. 아줌마, 아줌마 산 거. (지만, 2:01)
b. 배 타는 거 사람 이야? (지만, 2:04-2:07)
c. 치마 입은 사람 누구(이)게? (지만, 2:09)

지금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관계절 습득에 관한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관계절 발달과정에 어떤 특정한 발달순서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연구 관찰한 발달순서에 대한 논리설명과 언어간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우기 대부분의 관계절 습득에 관한 연구가 2-3명의 少數의 연구대상자의 自發言語資料를 근거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一般化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관계절 습득과정을 多數의 연구대상자로부터의 언어자료를 사용하여 統計的 檢證을 거쳐 그 결과를 언어간 交叉比較하여 관계절 습득과정에 內在되었을 수도 있는 解析的 原理와 관련하여 分析하였다.

Ⅲ. 研究 方法

1. 研究對象

16개월-45개월 된 아동 36명을 晉州地方에서 표본추출하였다. 유아원, 소아과 병원, 학교 등을 통해 해당 나이의 아이를 가진 어머니에게 연구의 참가를 권유하였다. 일단 참가에 동의한 어머니들에게 연구과정상 어머니들이 해야 될 일에 관해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은 모두 한국어만을 습득하고 있고 다른 어떤 언어발달의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은 36명 아동의 나이, 性別, 總 發話數, 關係節構造 發話數, 複合文 發話數를 보여준다.

2. 資料收集

발달심리 언어분야에서 사용되는 標準化된 방

법에 의하여 (Brown 1973; Lust, Chien, & Flynn, 1987) 자발언어를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아동들의 자발언어 표본은 아동의 가정에서 어머니와의 상호대화를 녹음하였다. 한시간 정도 해당 아동과 어머니, 혹은 그 아동과 친숙한 어른과의 둘 사이에 장난감이나 그림책 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에서의 대화를 그 어머니나 어른들이 녹음하였다.

〈표 1〉 좀 연구대상자의 나이, 성별, 총발화수, 복합문 및 관계절 발화수

연구대상번호	이름	성별	나이(개월)	총발화수	복합문발화수	관계절발화수
101	J, H	여	16	103	0	0
102	P, S	여	23	220	5	1
201	L, J	남	24	479	0	1
202	J, Y	여	24	341	16	2
203	K, S	남	25	182	14	1
204	H, S	남	25	228	26	6
205	H, SU	여	25	489	14	1
206	K, I	남	25	374	9	1
207	C, M	여	26	224	11	0
208	K, H	여	27	362	7	1
209	M, H	남	27	326	11	0
211	O, S	남	27	178	4	5
213	P, J	남	28	236	8	0
214	C, S	여	29	342	33	3
216	K, J	여	30	117	5	0
217	Y, E	여	30	261	5	0
218	K, A	여	31	148	20	0
219	P, SA	남	32	128	3	0
220	J, J	여	34	401	36	10
221	K, Y	여	34	368	51	9
301	P, JI	남	36	370	48	12
302	P, SAN	남	37	403	71	8
303	N, H	여	37	298	28	5
304	K, MI	여	37	267	83	11
305	B, J	남	40	338	72	14
306	C, JI	남	40	369	38	14
307	K, DO	남	41	665	41	6
308	K, HY	여	41	364	34	11
309	K, HAE	여	41	398	15	2
310	H, KY	여	40	173	17	7
311	Y, JU	남	43	336	42	12
312	S, CH	남	45	170	22	0
313	K, SA	남	44	285	56	7
314	K, UK	남	44	227	17	4
315	K, TA	남	41	143	3	0
316	K, EU	여	41	314	138	22
	계			10627	1003	185

3. 表記

녹음테이프로부터 아동의 자발언어와 바로 직전의 어른의 발화를 표기하였다. 대체로 이 시기의 아동들의 자발언어는 그 배경을 모를 경우 해독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가능한한 녹음을 한 당사자에게 一次的인 表記를 부탁하였다. 일차 표기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再檢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3차 점검하였다.

4. 아동의 自發言語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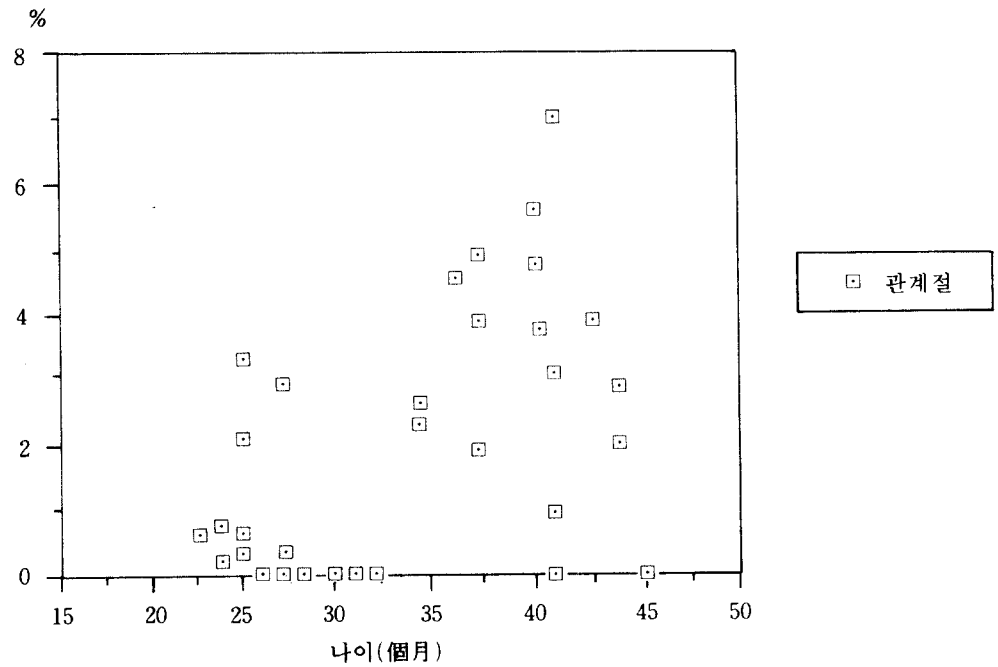
먼저 각 아동의 總 發話數를 확인하였다. 發話數를 확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장과 문장 사이가 중단될 경우 한 문장으로 간주하였다. 인사말이나, 예 아니오 식 대답, 바로 직전의 어른의 말과 똑 같은 모방 등은 발화수에서 제외시켰다. 총 발화수는 10627이었고 모두 번호를 매겼으며, IBM Data Base Program Ⅲ을 이용하여 자발언어 자료집을 만들었다. 총 발화중 관계절, 형용사, 보문을 포함한 문장 588발화를 골라 자료집에 수록하였으며, 全 文章(599 發話)은 컴퓨터화한 코딩체계로 자료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관계절이 포함된 185 文章을 사용하였다.

5. 統計分析

質的分析法 뿐만 아니라 SAS를 이용하여 回歸分析, Permutation test, Sign test로 全體 傾向, 研究對象間, 研究對象內 分析을 하였다.

Ⅳ. 結果 및 考察

1. 36명 아동의 最低 發話數는 103, 最高 665으로 平均 발화수는 295이였다. 이들 아동의 總 發話數 10627로, 이중 복합문 형태의 발화수는 1003이었다. 관계절이 포함된 발화수는 185로 全 複合



〈그림 1〉 나이에 따른 아동의 總 發話數에 대한 關係節 發話數의 백분율 분포도

文數의 18.5%에 해당된다. 〈그림 1〉은 36명 아동의 나이(16~45개월)에 따라 각 아동이 사용한 총 발화수에 대한 관계절 발화수를 백분율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동의 관계절 사용빈도는 아동의 나이의 증가와 비례하였다. 즉, 관계절 산출량은 아동의 개월수로 나타낸 나이와 높은 相關關係(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0.4965, P=0.0021)를 보여, 관계절 산출량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2. 아동이 사용한 관계절을 분석한 결과, 머리명사에 따라 크게 네 가지 基本類型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아동이 사용한 관계절의 네 가지 기본유형은 1) 머리명사가 없는 관계절의 전조형 2) 어휘 머리 명사가 없이 '것'만 있는 자유관계절 유형 3) '것'과 어휘 머리 명사 둘 다 있는 관계절 구조 4) '것'없이 어휘머리명사만 있는 어휘관계절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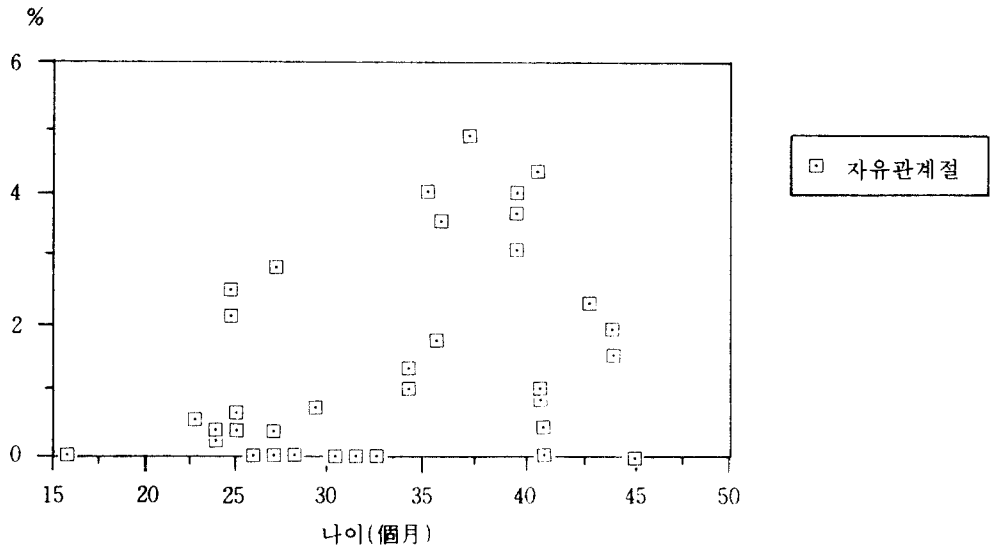
3. 아동이 사용한 관계절을 분석한 결과, 네 가지 관계절 유형중 각 유형의 사용 경향이 달랐다. 〈표 2〉의 1)과 같은 형은 완전한 관계절이라기 보다는 '관계절의 전조형'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화는 아동의 자발언어 자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型으로, 실제 분명하지 않은 발화 때문인지, 관계절의 전조형인지의 식별이 무척 어렵다. 아동의 발화가 일어난 배경을 고려하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는 〈표 2〉에 제시된 한 가지 경우에 국한되었다. 이 경우는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인형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표 2〉의 1)과 같은 예를 제외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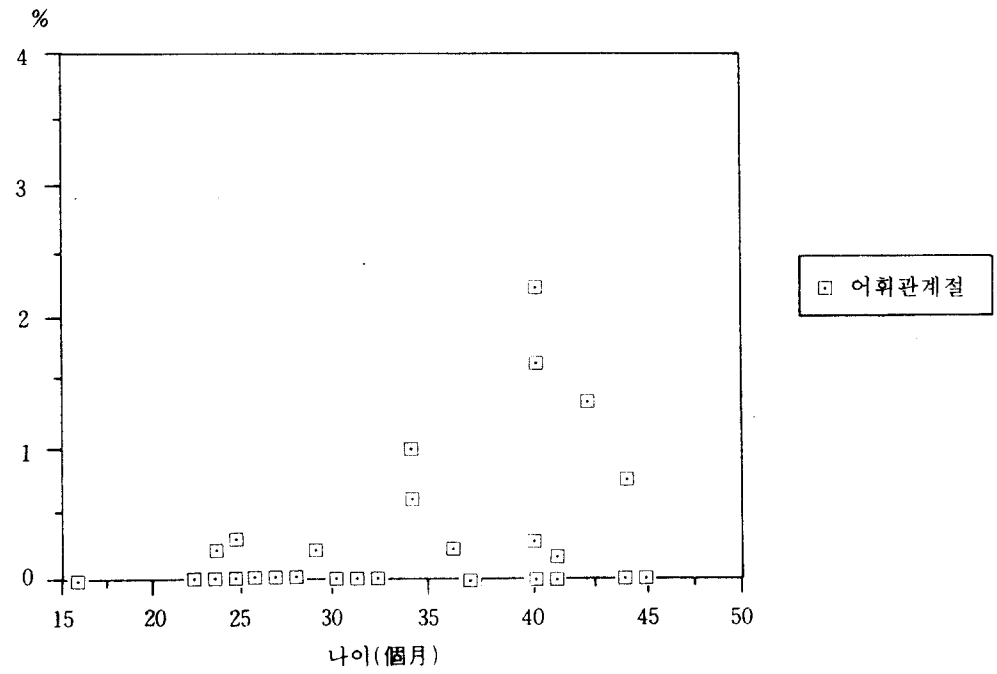
〈표 2〉 아동이 사용한 관계절의 네 가지 類型

1) 머리명사가 없는 관계절의 전조형
"자전거 타는"(자전거 타는 (인형)을 말한 것으로 추정됨) (# 308-15)
2) 자유관계절
"목에 거는 거야" (목걸이를 지칭함) (# 102-12)
"피아노 땅땅 하는거 사 주야겠다" (# 205-11) (피아노를 지칭함)
3) '것'과 어휘 머리 명사가 병행된 관계절 형
"그리고 아빠 쓰는거 안경은…" (# 313-1) (안경을 지칭함)
4) 어휘관계절
"아빠가요 안경 사 줄 돈이 없다고요 멀리서 보지 말라 했어요" (# 316-15) (돈을 지칭함)

아동들이 사용한 관계절 구조는 〈표 2〉의 2)와 같은 자유관계절로써 본 연구에서 나타난 모든 관계절 자료의 74%는 이 유형이었다. 〈그림 2〉는 나이에 따른 각 이동의 총 발화수에 대한 자유관계절 발화수를 백분율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36명의 아동중 26명은 이 유형을 사용하였고, 9명은 다른 관계절은 사용하지 않고 자유관계절만 사용하였다. 이 유형을 사용한 가장 어린 아동의 나이는 23개월, 가장 많은 아동은 44개월로, 평균 나이는 27개월이었다.



〈그림 2〉 나이에 따른 각 아동의 總 發話數수에 대한 自由關係節 發話數의 백분율 분포도



〈그림 3〉 나이에 따른 각 아동의 총발화수에 대한 어휘관계절 발화수의 백분율 분포도

36명의 아동중 13명의 아동이 어휘관계절을 산출하였다. 어휘관계절을 발화한 아동중 가장 어린 아동의 나이는 24개월, 가장 많은 아동은 44개월로, 평균 나이는 36.3개월이었다. 〈그림 3〉은 나이에 따른 전체 발화수에 대한 어휘관계절 발화수를 백분율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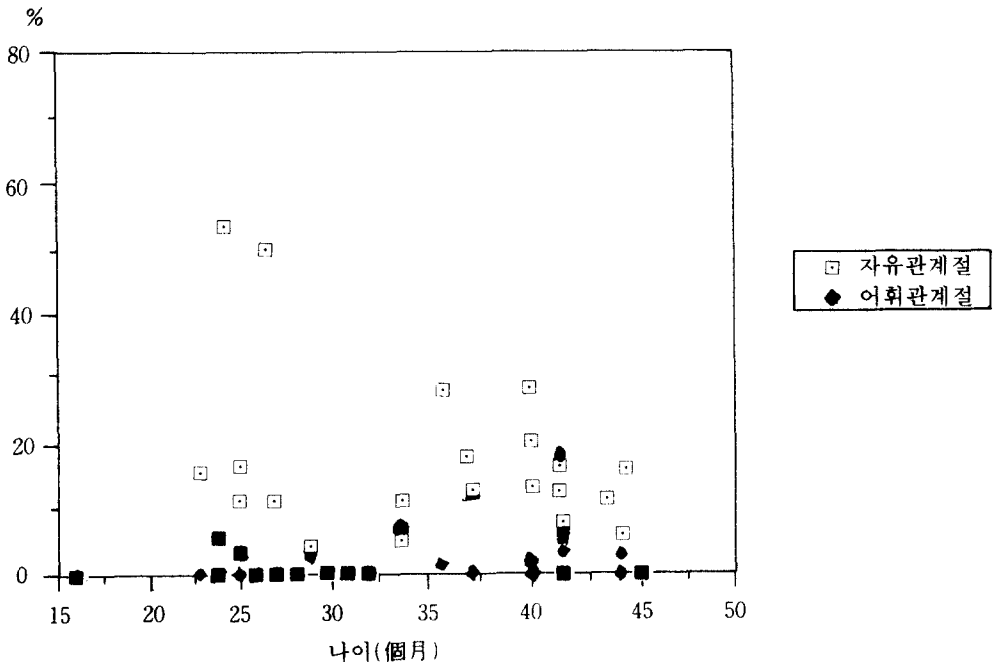
4. 관계절 유형에 따른 발달 순서

1) 자유관계절과 어휘관계절

자유관계절과 어휘관계절 사이의 머리명사의 유형에 따른 관계절 습득의 발달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림 4〉는 나이에 따른 각 아동의 이들 두 관계절 유형의 산출량에 대한 복합문 발화수를 백분율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유형의 산출량이 나이에 따라 증가되었다. 그러나 관계절 산출량의 각 아동간의 변량이 동등하게 분포되지 않으므로 Permutation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Darlington, 1990). Permutation test 결과는 어휘관계절은 $P=0.008$, 자유관계절은 $P=0.002$로써 두 유형의 관계절 산출량은 아동의 나이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관계절 유형에 따른 발달순서

다음은 관계절 습득에 어떤 발달 순서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관계절 습득과정에 어떤 유형이 시기적으로 먼저 사용되는가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Sign test를 사용하였다. 자유관계절과 어휘관계절이 똑 같은 시기에 사용된다는, 즉 어휘관계절은 사용하지 않고 자유관계절만 사용하는 아동의 수와 자유관계절은 사용하지 않고 어휘관계절만 사용하는 아동의 수가 동일하다는 零假說을 검증하였다. 어휘관계절은 사용하



〈그림 4〉 나이에 따른 각 아동의 총 발화수에 대한 자유관계절과 어휘관계절 발화수의 백분율 분포도

지 않고 자유관계절을 사용한 아동의 수는 12명인데 비하여 자유관계절은 사용하지 않고 어휘관계절만 사용한 아동의 수는 0명이었다. Sign test (Darlington & Carlson, 1987)의한 P=0.00024, one tailed로 자유관계절이 어휘관계절보다 일찍 사용됨을 보여준다. 또한 자유관계절만을 산출한 어린이의 평균 나이는 27개월이고 어휘관계절을 사용한 아동의 평균 나이는 36.3개월이었다. 이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유관계절에서 어휘관계절로 발달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한국어 관계사 발달의 초기단계의 관계절 유형은 영어 습득과정의 초기단계의 연구(Flynn과 Lust, 1980; Hamburger, 1980; Limber 1973)와 중국어 연구(Packard, 1982, 1986)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자유' 관계절 유형과 매우 유사하다.

3) 병행관계절

위의 자유관계절과 어휘관계절 형태 외에 아동들에게서 나타난 유형으로는 '것'과 어휘 머리명사가 병행된 형태의 관계절이라 할 수 있다. 〈표 3〉은 아동들이 사용한 이러한 유형의 관계절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아동이 사용한 병행관계절의 例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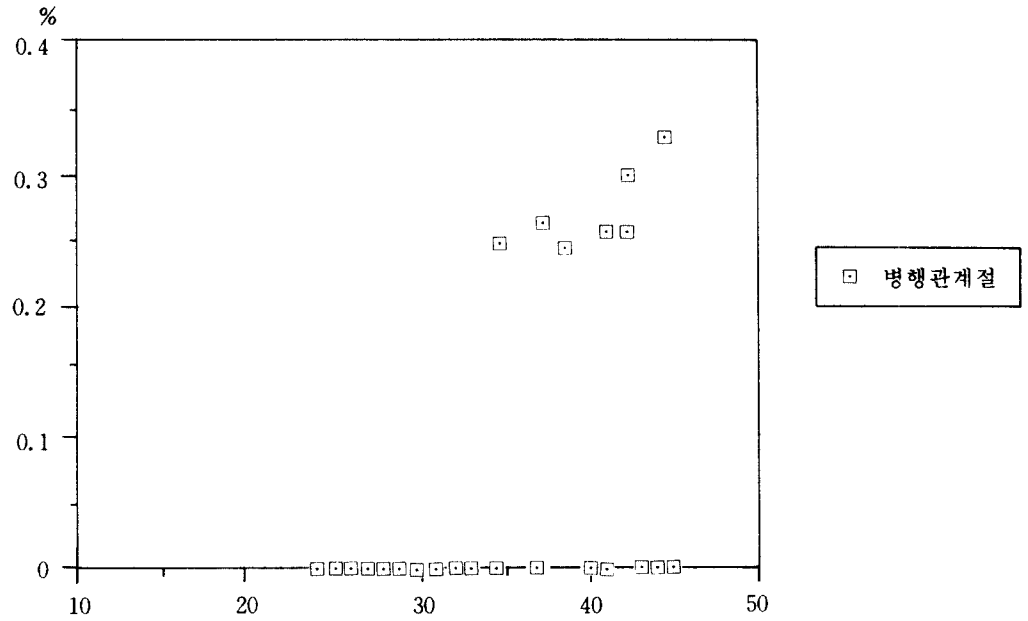
1. 그리고 아빠 쓰는 거 안경은 (# 313-17, 안경)
2. 우리 집에 있는 거 고기 (# 313-11, 금붕어)
3. 숨어 있는 거 마이크 (# 305-33, 마이크)
4. 물 있는 거 하마 (# 309, 하마)
5. 여기를 이 갖고, 손톱 깍는거 이거 줘 (# 205-6, 손톱깍기)
6. 그런데요, 반지 달려있는거 그거 커서 안되구요 (# 316-29, 구두)
7. 배운거 그거 없어요 (# 316-3, 성경)
8. 붙어 있는거 그거 있다. (# 220-1, 넥타이)
9. 나 봤는데요, 애기 모자 쓰는 거 이거 동그라미 (# 302-10, 모자)
10. 엄마 뭐 사갈라 오면 수퍼 가서 빨래 하는거 그거 사오고 (# 308-7, 비누)

〈표 3〉에 제시된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병행관계절은 한국어의 성인 문법에서는 非文으로 취급된다. 〈그림 5〉는 나이에 따른 아동의 총 발화수에 대한 이 유형의 관계절 산출량을 백분율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아주 어린 아동들은 이 유형을 사용하지 않았다. 가장 사용빈도가 높았던 아동의 나이는 34개월로, 자유관계절이 나타난 평균 나이 27개월과 어휘관계절이 나타난 평균 나이인 36.3개월 사이에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類型의 관계절 습득과정은 自由關係節과 관계절의 완성된 유형인 어휘관계절 사이의 중간 유형이라 특정지을 수 있다.

4) 문장의 길이가 발달순서에 미칠 가능성

이러한 발달형태가 단순히 아동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發話의 길이가 증가하는것을 반영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이 '것'이 포함된 자유관계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어휘관계절보다 문법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이 아니고 단지 길이가



〈그림 5〉 각 아동이 사용한 총발화수에 대한 병행관계절 발화수의 백분율 분포도

짧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세 가지 아동의 發話形態를 보면 이러한 발달형태는 문장 길이의 길고 짧음에만 기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위에서 보면 '것'+어휘관계절 형태인 병행관계절이 어휘관계절 형태보다 먼저 사용되었지만 병행관계절은 어휘관계절에 '것'이 덧붙여진 형태이므로 문장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병행관계절이 어휘관계절 보다 항상 길다. 둘째, 본 연구의 아동이 사용한 자유관계절을 이와 표면구조가 동일한 '것' 補文化구조와 비교해 보면 후자의 구조는 (15)에 있는 것과 같이 動詞와 서술형 의미가 다 갖추어진 완전한 문장형태가 거의 대부분 (99%)이었는데 비해, 자유관계절은 (16)과 같이 본동사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51%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아동의 언어습득 과정에 문장의 내부구조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 또 만들거다. (# 214-22)
(16) 그린 거 (# 208-1)

세째, 아동이 사용한 관계절 유형과 본동사가 같이 사용된 완전한 문장형태의 빈도를 비교해 봤을때 자유관계절과 어휘관계절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자유관계절이 어휘관계절보다 시기적으로 먼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과 같은 완전한 문장형태의 자유관계절과 (18)과 같은 어휘관계절의 사용량은 각각 54%로서 동일하였다.

(17) 반지 그려있는건 작아요. (# 316-27)
(18) 우리집에 있는 멍멍이잖아. (# 214-11)

V. 結論 및 討議

본 연구의 결과, 한국아동은 발달순서에 의해 관계절 습득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순서는 관계절의 머리명사의 有無에 따른 유형으로 자유관계절이 먼저 나타나고 나중에 어휘관계절이 나타났다. 이 순서는 自發言語 자료를 이용한 Hamburger(1980), 실험연구의 언어자료를 이용한 Flynn & Lust(1980)의 영어 관계절 습득 연구, Packard(1982, 1986)의 중국어 관계절 연구 등에서 밝혀진 순서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관계절 습득에는 아동이 배우는 특정한 언어의 관계절에 대한 성인문법의 多樣性에 관계없이, 적어도 본 연구에서 비교한 한국어, 영어, 중국어의 세 言語에 普遍的으로 적용되는 어떤 一貫된 制約規則에 따른다는 結論을 얻었다.

또한 한국아동의 언어 습득자료는 중간단계로서 한국어 성인문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補文字 '것'이 어휘 머리명사와 같이 사용된 병행관계절을 아동이 사용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것은 아동문법의 근원이 주위 어른들로부터의 주입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이 보문절은 보문자라는 머리어로 시작된다는 (보편문법의 언어원리중 x-bar 이론)기능어 범주에 대한 지식이 초기의 아동 언어습득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영어의 'that'과 같은 기능어 범주가 성인 문법에서 생략되거나 기능어가 아닌 다른 역할로 쓰이는 것으로 보아 아동의 기능어범주 습득이 주위세계를 통해서 배울 수만은 없다는 연구의 결과와 상통한다(Pinker, 1982). 그러므로, 보편문법의 언어원리가 아동의 '言語 初期狀態'로 시작됨을 보여주어 언어습득에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이 언어 습득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參 考 文 獻

조명한(1984). 한국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 책략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Andrews, A. (1975). Studies in the syntax of relative and comparative clau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 I. T.

Brown, R. (1973). A First Langua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Chomsky, N. (1975). Reflections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Chomsky, N. (1980).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Chomsky, N. (1986). Barriers. Boston, Ma: MIT Press.

Chomsky, N. (1987). Language in a Psychological Setting (LPS): Mentalism and Behavior, Japan: Sophia University.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Chicago.

Darlington, R. (1990). Regression and Linear Models. New York: McGraw-Hill.

Darlington, R., & Carson, P. (1988). Behavioral Statistics. Free Press.

Demuth, K. (1990). Relative clauses, cleft construction and functional categories in Sesotho acquisition: Paper presented at the 5th Child Language Congress, Budapest.

Flynn, S. & Lust, B. (1980).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Developmental changes in their heads. Corne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

Gelman, R. & Baillargeon, R. (1983). A review of

some Piagetian concepts. In Mussen, P.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Ⅲ: Cognitive Development (pp. 167-230).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Gerken, L., Landau, B. & Remez, R. (1990). Function morphemes in young children's speech perception and produ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04-216.

Gleitman, L. (1990). The structural sources of verb meaning. Language Acquisition, 1, 3-55.

Goodluck, H. & Tavakolian, S. (1981). Competence and processing in children's grammar of relative clauses. Cognition 11.

Goodluck, (1982). Competence and processing in children's grammar of relative clauses. Cognition, 16, 1-28.

Grimshaw, J. & Rosen, S. (1990). Knowlege and obedience: The developmental status of the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1(2).

Groos, A. & van Riemsdijk, H. (1979). Matching effects in free relatives: A parameter of core grammar. In A. Belletti, et al., (Eds). Theory of Markedness in Generative Grammar: Processdings of the IV GLOW Conference.

Hamburger, H. (1980). A deletion ahead of its time. Cognition, 8(4).

Hamburger, H. & Crain, S. (1982). Relative acquisition. In S. Kuczaj Ⅱ(Ed.) Language Development Ⅵ. Hillsdale, NJ: Erlbaum.

Jacobson, P. (1985). The comp analysis of free relatives and the notions of head. Paper presented at the LSA Annual Meeting.

Kim, Y. J. (1987). Th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English and Korean: Development in spontaneous produ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Lebeaux, D. (1988). Language Acquisition and the Form of the Gramma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ee, K. (1991). On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relative clauses in Korean: The universal structure of comp. 서울 : 翰信文化社.

Lee, K., Lust, B. & Whitman, J. (1990). On the acquisition of functional categories in Korean: A study of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Korean relative clauses. In Y. Baik (Ed.).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Ⅶ.

Limber, J. (1973). The genesis of complex sentences. In T. E. Moore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New York: Academic.

Lust, B., Chien, Y., & Flynn, S. (1987). What children know: Methods for the study of first language acquistition. In B. Lust (Ed.) Studies in the Acquisition of Anaphora, Vol. Ⅱ. Dordrecht: Reidel. pp. 271-356.

Packard, J. (1982). The acquistition of modified nominal in Mandarin Chine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Packard, J. (1986). The first language acquisition

of prenominal modification with de in Mandari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Piaget, J. (1970). The psychology of the child. New York: Basic Books.

Pinker, S. (1982). A theory of the acquisition of lexical interpretive grammars. In J. Bresnan (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MA: MIT Press.

Tavakolian, S. (1981). The conjoined clause analysis of relative clauses. In S. Tavakolian (Ed.). Language Acquisition and Linguistic thoery, Cambridge, MA:P MIT.